

[1] 암 발생통계 분석 결과

대장암·전립선암·유방암 등 서구형 암발생 지속 증가

□ 2009년 암발생통계 분석결과 남자, 여자 모두 5대암이 전체 암발생의 2β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남자 5대암**(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여자 5대암**(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 남녀를 합해 200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주요 암 발생 현황 >

(단위 : 명, %)

순위	전체			남자			여자		
	암종	발생자수	분율	암종	발생자수	분율	암종	발생자수	분율
	계	192,561	100.0	계	99,224	100.0	계	93,337	100.0
1	갑상선	31,977	16.6	위	19,953	20.1	갑상선	26,815	28.7
2	위	29,727	15.4	대장	15,068	15.2	유방	13,399	14.4
3	대장	24,986	13.0	폐	14,026	14.1	대장	9,918	10.6
4	폐	19,685	10.2	간	11,913	12.0	위	9,774	10.5
5	간	15,936	8.3	전립선	7,351	7.4	폐	5,659	6.1
6	유방	13,460	7.0	갑상선	5,162	5.2	간	4,023	4.3
7	전립선	7,351	3.8	방광	2,550	2.6	자궁경부	3,733	4.0
8	담낭 및 기타담도	4,782	2.5	췌장	2,433	2.5	담낭 및 기타담도	2,403	2.6
9	췌장	4,427	2.3	담낭 및 기타담도	2,379	2.4	췌장	1,994	2.1
10	비호지킨 림프종	3,873	2.0	신장	2,327	2.3	난소	1,783	1.9

-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 발표를 시작한 1999년 이후 2009년까지 암발생은 연평균 3.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자(1.6%)에 비해 여자(5.5%)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남자의 경우 폐암, 간암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장암(6.7%)과 전립선암(13.2%), 갑상선암(25.6%)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여성의 경우 갑상선(25.4%), 유방암(6.3%), 대장암(5.1%)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간암(-1.5%)과 자궁경부암(-4.4%)은 감소하였다.

- 노인인구 증가, 암진단 기술 발달·조기검진 활성화, 서구형 식생활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암발생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고지방·저섬유 식이습관과 관련된 대장암은 여성에서 2009년 처음으로 위암을 앞질렀으며, 남자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09년 암발생률 상승은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데, 특히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조기진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발생
 - 암종별로 살펴보면, 위암의 경우 우리나라 남자가 평생동안 위암에 걸릴 누적 확률은 9.1%, 여성은 4.8%로 나타났다.
 - 폐암(남자: 7.3%, 여자: 3.2%), 간암(남자: 5.1%, 여자: 2.2%)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 이는 여성에 비해 흡연, 음주 등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는 남자에서 해당 암의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여성이 평생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은 7.9%, 유방암 4.2%, 대장암 5.0%, 위암 4.8%이며 대장암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균수명까지 생존시 암발생 확률, 2009년 >

(단위 : %)

순위	남자 (평균수명: 77세)		여자 (평균수명: 84세)	
	암종	누적발생확률	암종	누적발생확률
	전체	37.9	전체	32.7
1	위	9.1	갑상선	7.9
2	대장	7.0	유방	4.2
3	폐	7.3	대장	5.0
4	간	5.1	위	4.8
5	전립선	4.2	폐	3.2
6	갑상선	1.6	간	2.2
7	방광	1.3	자궁경부	1.4
8	췌장	1.2	담낭 및 기타담도	1.5
9	담낭 및 기타담도	1.2	췌장	1.2
10	신장	1.0	난소	0.7

[2] 암생존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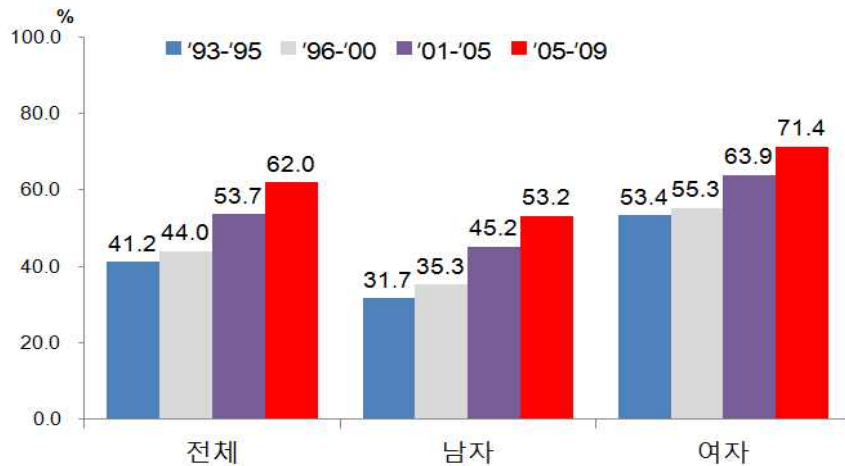
암환자의 5년 생존율 62.0%로 증가
 암 진단 후, 남성 암환자 10명 중 절반 이상,
 여성 암환자 10명 중 7명 이상 장기 생존

- 2005~2009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2.0%로 최초 암 진단 이후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ext{5년 상대생존율} = \frac{\text{해당기간 암발생자의 5년 관찰 생존율}}{\text{일반인구의 기대 생존율}}$$

* 5년 상대생존율은 암환자가 암 이외의 원인(교통사고,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하여 추정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말한다.

<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 >



-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05~'09년 5년 생존율은 62.0%로 '93~'95년 41.2%에 비해 20.8%p, '96~'00년 44.0%에 비해 18.0%p가 증가하였다.
- 남녀전체에서 갑상선암(99.7%), 유방암(90.6%), 대장암(71.3%), 위암(65.3%)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고,
 - 췌장암(8.0%), 폐암(19.0%), 간암(25.1%)은 낮은 5년 생존율을 보였다.

□ 그러나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93~'95년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 암의 5년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 특히 전립선암(31.7%p), 위암(22.5%p), 대장암(16.5%p), 간암(14.4%p), 유방암(12.7%p)의 5년 생존율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 여성의 5년 생존율이 처음으로 70%를 상회하고, 여자의 호발 암종인 갑상선암(1위)은 99.8%, 유방암(2위)은 90.6%에 달하였다.

< 발생률 순위별 생존율('05~'09) 비교 >

(단위 : %)

순위	전체			남자			여자		
	암종	발생분율	생존율	암종	발생분율	생존율	암종	발생분율	생존율
	계	100.0	62.0	계	100.0	53.2	계	100.0	71.4
1	갑상선	16.6	99.7	위	20.1	65.9	갑상선	28.7	99.8
2	위	15.4	65.3	대장	15.2	73.2	유방	14.4	90.6
3	대장	13.0	71.3	폐	14.1	17.1	대장	10.6	68.7
4	폐	10.2	19.0	간	12.0	25.1	위	10.5	64.0
5	간	8.3	25.1	전립선	7.4	87.6	폐	6.1	23.9
6	유방	7.0	90.6	갑상선	5.2	99.3	간	4.3	25.1
7	전립선	3.8	87.6	방광	2.6	77.6	자궁경부	4.0	80.3
8	담낭 및 기타 담도	2.5	26.1	췌장	2.5	7.9	담낭 및 기타 담도	2.6	25.2
9	췌장	2.3	8.0	담낭 및 기타 담도	2.4	27.0	췌장	2.1	8.2
10	비호지킨 림프종	2.0	64.2	신장	2.3	77.2	난소	1.9	60.2

□ 이러한 생존율 증가는 남녀 암종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이는 암진료 기술의 발전과 꾸준한 국가암관리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우리나라 호발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대표적 서구형 암종인 대장암, 유방암은 미국, 캐나다와 비슷하거나 높은 5년 생존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암생존율 국제 비교 >

(단위: %)

암종	한국 ('96-'00)	한국 ('01-'05)	한국 ('05-'09)	미국 ¹⁾ ('99-'06)	미국 ²⁾ ('03)	Canada ³⁾ ('04-'06)	Europe ⁴⁾ ('00-'02)	일본 ⁵⁾ ('97-'99)
위	46.6	57.7	65.3	26.0	27.6	22	24.9	62.1
간	13.2	20.1	25.1	13.8	15.2	15	-	23.1
자궁경부	80.0	81.2	80.3	70.2	70.2	70	60.4	71.5
대장	58.0	66.6	71.3	65.0	65.6	61	56.2	65.2
갑상선	94.9	98.3	99.7	97.3	97.2	97	83.2	92.4
유방	83.2	88.4	90.6	89.0	89.9	82	79.0	85.5
폐	12.7	16.1	19.0	15.8	16.0	12	10.9	25.6
췌장	7.6	8.0	8.0	5.6	4.8	6	-	6.7
전립선	67.2	79.9	87.6	99.1	99.4	95	77.5	75.5
모든 암	44.0	53.7	62.0	66.0	66.7	62	-	54.3

- 주 : 1) Homer MJ, Ries LAG, Krapcho M, Neyman N, Aninou R, Howlader N et al (eds). SEER Cancer Statistics Review, 1975-2007, 2010
 2) Fast Stats, SEER (<http://seer.cancer.gov/faststats/> accessed on Dec 27, 2011)
 3) Canadian Cancer Registry, Statistics Canada and Provincial/Territorial Cancer Registry. 2010
 4) Verdecchia et al. Recent cancer survival in Europe: a 2000-02 period analysis of EURO-CARE-4 data. Lancet Oncology, 2007
 5) Matsuda T, Ajiki W, et al. Population-based survival of cancer patients diagnosed between 1993 and 1999 in Japan: A chronological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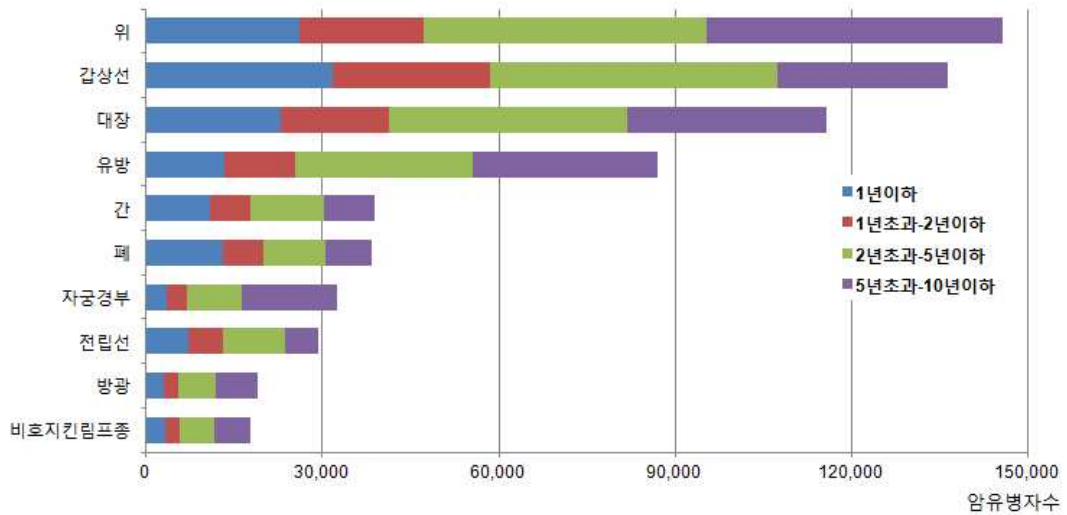
[3] 암 유병통계 분석 결과

암환자 80만명 시대, 암생존자에 대한 대책 필요

- '10년 암유병자수는 총 808,503명(남 371,001명, 여 437,502명)으로 이는 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완치된 암환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 * 10년 암유병자수 :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10년간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 수
 - 이는 2009년 전체 인구(49,656,767명) 60명당 1명*이 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 * 전체 1.63%, 남성 1.49%, 여성 1.77%
 - 특히, 6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7명당 1명으로 남자는 12명당 1명*, 여자는 23명당 1명이 암 진단 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체 6.0%, 남성 8.58%, 여성 4.26%

- 암 진단 후 5년 이상 장기 생존자는 243,082명(30.1%), 추적 관찰 그룹(2~5년 암유병자)은 270,696명(33.5%), 적극적 암 치료 그룹(2년 이하 암유병자)은 294,725명(36.4%)으로 분석되었다.
- 암발생률 및 생존율의 증가로 암유병자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암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 * 암환자의 2차암에 대한 조기검진, 위절제술 후 영양관리 및 재활 등
- 암종별로는 위암의 유병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갑상선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순이었다.
 - 5년 이상 장기 생존자는 위암이 50,2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암은 33,972명, 유방암은 31,447명이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가 우리나라의 암등록통계사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 세계에서 전국 단위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는 국가는 인구규모에서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수 규모인 영국은 3년후에 발표
 - 이러한 결과는 국가암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00년 이후의 암예방·검진 인식 향상, 암진료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 앞으로도 국가암관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암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암종의 진단 후 생존기간별 암유병자수, 2009 >



	위	갑상선	대장	유방	간	폐	자궁경부	전립선	방광	비호지킨림프종	모든암
1년 이하	26,167	31,773	22,813	13,264	10,764	12,999	3,534	7,081	2,905	3,302	165,129
1년 초과-2년 이하	20,966	26,821	18,556	12,214	7,061	6,916	3,492	5,907	2,620	2,442	129,596
2년 초과-5년 이하	48,211	48,794	40,400	29,997	12,516	10,614	9,365	10,566	6,364	5,898	270,696
5년 초과-10년 이하	50,245	29,000	33,972	31,447	8,579	7,784	16,191	5,629	7,162	6,014	243,082
합계	145,589	136,388	115,741	86,922	38,920	38,313	32,582	29,183	19,051	17,656	808,503

200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12월 말에 발간 예정인 2011년도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009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자료